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윤 훈 표*

1. 머리말
2. 표준화 시도와 1421년 진도법의 공포
3. 계축진설의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4. 맺음말

1. 머리말

세종대 제도 문물의 정비 작업이 일대 전기를 맞이하였다. 군사 분야에도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진법서의 편찬이 포함되었다. 두 차례 이루어졌으며 그에 의해 훈련 체계도 개편되었다.

진을 치는 일은 전근대 전투에서 가장 기본에 속했던 것으로 그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측 진을 지키고 적진을 분쇄하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니고 평상시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했다. 나아가 조직 편제도 그에 적합하게 구축해 놓아야 실전에 임해 혼란 없이 전개시킬 수 있

* 경찰대학교 강사

었다. 그러므로 우수한 진법 교범의 편찬과 함께 효율적인 훈련 체계의 수립이 긴요했다.

이미 고려 말기부터 어지러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조선 태조는 진법을 온전히 갖춰 훈련시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재위 시절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수립했던 진법과 훈련 체계는 후대의 이정표가 될 정도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등이 제거당했던 것과 함께 군제 개편의 방향이 바뀌면서 개정이 불가피했다. 이어 등장했던 태종 정권도 요긴함에 대해 공감했으나 성격상 계승이 곤란했기 때문에 별도로 장만해야 했다.

그런데 세종대에 이르러 전과 차원이 다른 정비 작업이 추구되었다. 앞선 성과들을 종합하는 가운데 전군을 망라할 수 있는 일원화된 새로운 표준안의 마련에 힘을 쏟았다. 단순히 기존의 것을 적당히 손질하여 답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창기의 것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가감하되 적어도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전적인 것도 과감히 수용하였다.

세종대 2차례에 걸쳐 진법서가 나왔는데 이는 새로운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본고에서는 그 각각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무슨 연유로 2차례나 이루어졌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에 실전에 활용됨을 전제로 삼았는데 이는 훈련을 통해 검증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진법서는 어떤 형태로든 훈련 체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해 보려고 한다.

흔히 세종대의 진법서는 전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오위진법』의 모체로 평가된다.¹⁾ 당연히 『오위진법』의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도 세종대 나온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체에 해당되는 것의 분석 없이 제대로 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대 것에 대한 고찰은 자체의 이해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기 진법과 그 훈련 체계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세종대에 간행된 진법서는 현재까지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단

1) 정해은,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76쪽.

지 원문이 『세종실록』에 실려 있을 뿐이다. 지금 상태로는 전체를 온전하게 해명하는 것은 곤란하며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본고의 한계가 분명하다. 일단 기존 연구에 따라 1차로 1421년(세종 3)에 나온 것을 陣圖法으로, 1433년(세종 15)에 편찬된 것을 『癸丑陣說』로 명명한다.²⁾ 그리고 그에 입각해서 논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차로 전기의 대표적인 진법서들이 번역되었다는 사실이 각별하다.³⁾ 이로 인해 텍스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 더불어 각각, 또는 『오위진법』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추이, 나아가 후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해명 작업도 추구되었다.⁴⁾ 한편 그 동안의 성과에 힘입어 전통 시대의 병서에 대한 해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세종대 진법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도 나왔다.⁵⁾ 아울러 진법 훈련에 대해서도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다.⁶⁾

이상의 성과들로 기본적인 사실 관계의 파악 및 그 의미 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진법서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초창기 정도전의 『진법』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되면서 심도 높은 고찰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외의 것들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⁷⁾ 더불어 그들이 훈련 체계의 개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조선전기 진법 및 훈련 체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 문물의 정비에 일대 전

2) 유재호·성백호·임흥빈 역,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兵將說·陣法』, 1983

3) 유재호·성백호·임흥빈 역,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兵將說·陣法』, 1983

4) 許善道, 「〈陳法〉考-書名 〈兵將圖說〉의 잘못을 바로잡음」, 『歷史學報』 47, 1970; 黃秉國, 「조선조의 진법 고찰」, 『軍史』 15, 1987; 河且大, 「朝鮮初期 軍事政策와 兵法書의 發展」, 『軍史』 19, 1989; 최홍록, 「리조초기의 첫 군사훈련교범인 '진도'와 정도전의 '진법'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2; 김광수, 「鄭道傳의 「陣法」에 대한 고찰」, 『육사논문집』 50, 1996; 盧永九,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軍史』 34, 1997; 김동경, 「정도전의 『진법(陣法)』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 『한국문화』 53, 2011

5) 정해은, 「진도법」, 『계축진설』,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6) 閔賢九, 「陣法訓練의 強化」,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研究院, 1983; 곽낙현, 「조선전기 習陳과 군사훈련」, 『동양고전연구』 35, 2009; 김동경, 「조선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 『軍史』 74, 2010

7) 정도전의 진법에 관해 주4)의 河且大, 김광수, 김동경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기가 되었던 세종대의 그것에 대한 해명은 시급하다.

이제 세종대 편찬된 진법서와 그와 연관해서 혼련 체계의 개편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되 제1장에서는 표준화가 새롭게 시도된 이유와 과정, 그리고 그 결실인 1421년 진도법의 공포 문제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1절에서는 세종대에 들어와 표준화를 시도했던 이유와 그 모델로서 五行陣法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주도했던 卞季良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그 결실로 1421년에 공포된 진도법의 내용과 그로 인해 혼련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세종대 첫 번째 표준화 시도였던 진도법의 의미를 해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장에서는 진도법을 수정, 보강해서 『계축진설』을 편찬하게 된 연유와 내용, 그 의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계축진설』의 내용 파악을 통한 수정 및 보강의 성격을, 2절에서는 그에 따른 체계 개편과 의미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로써 전기 진법 체계를 이해하는 단서를 찾는 동시에 앞 시기의 성과들과 그 결정판인 『오위진법』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2. 표준화 시도와 1421년 진도법의 공포

1) 시도의 배경과 변계량의 진법설 원리

왕자의 난으로 집권한 태종 계열은 사병 혁파를 계기로 본격적인 군제 개편에 나섰다. 정국 안정과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그 때 역점을 두었던 사안 중의 하나는 장수와 병사 사이에 오래 전부터 내려왔던 사적인 영속 관계를 철폐하고 공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일이었다. 시대 상황과 관련이 깊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전력을 증진시키는 방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종래에는 병사들이 혈연이나 지연 등으로 엮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는 사적인 관계를 조장하는 폐해가 없지 않으나 위급한 순간에는 위력을 발휘했다.⁸⁾ 하지만 공적인 지휘 체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철폐시켜야 했다. 문제는 그 대안이다. 공적인 질서가 유지되면서도 결정적일 때 마치 한가족처럼 서로 구원할 수 있어야 했다.

태종 정권에서는 그 방도를 지휘관 양성 방식의 변모와 훈련 체계의 개편에서 찾았다. 전자는 무과 실시라든가 새로운 시취 병종의 설치 등으로 표현되었다.⁹⁾ 후자에 대해서는 특히 진법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앙 중심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 체계화되지 못했다.¹⁰⁾ 일단 표준화된 진법을 만들고 중외에 걸쳐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 아울러 제대로 연습했는지를 점검하는 장치의 갖추도 필수였다. 이것이 없다면 지난 시절에 만들었던 방안을 다시 손질해서 내놓는 것에 불과할 것이었다.

우선 표준화된 진법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원리를 오행진에서 찾았다. 중국 병서인 『李衛公問對』에 나오는 方·圓·曲·直·銳의 다섯 종류의 진형에 근거하되 상대방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형하여 대처하는 것을 도입하고자 했다. 이는 특히 옛부터 익숙했던 음양오행설에 의거하여 움직였기 때문에 五行陣法이라고 했다.¹¹⁾

그러나 곤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조선은 제후국을 자처했기 때문에 三軍으로 편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삼군을 오행진법에 맞춰 연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제기되었다. 태종 후반기부터 검토하면서 세종 초기에 본격적인 정리 작업이 추진되었다. 그 때 상왕인 태종은 변계량에게 진법서를 완성하도록 명했는데, 1421년 5월 경에 완료했던 것 같다.¹²⁾ 그리고 곧 바로 시험에 들어갔다. 일단 대열 의식을 통해 관료들부터 시범적으로 연습시켰

8)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1월 갑술

9) 車文燮, 「鮮初의 甲士考(上,下)」, 『史叢』 4, 5, 1959, 1960; 尹薰杓, 「朝鮮初期 武科制度 研究」, 『學林』 9, 1987; 沈勝求, 「朝鮮初期 武科制度」, 『北岳史論』 1, 1989

10) 尹薰杓, 「麗末鮮初 軍事訓練體系의 改編」, 『軍史』 53, 2004, 208~210쪽.

11) 河且大, 앞의 논문, 106~107쪽.

12)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5월 기묘

다.¹³⁾ 이어 삼군으로 확대하였다.¹⁴⁾

하지만 곧 바로 확정해서 공포하지 못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세종실록』에 진도법의 원문이 수록된 것은 2개월이 지난 7월이었기 때문이다.¹⁵⁾ 아마도 그 사이에 편찬을 주도했던 변계량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진법을 놓고 상당한 논쟁이 오갔던 모양이다. 그런 사실이 변계량이 정리했던 「陣說問答」에 수록되었다.

변계량은 益齋(李齊賢), 三峯(鄭道傳), 浩亭(河崙) 등의 설을 종합하여 오행진법을 구체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삼봉이 말한 ‘전충은 움직이지 않고 후충이 먼저 나가 적을 유인한다’는 설을 채택하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러 논자들은 우리나라의 지형은 평탄한 곳이 적은 반면에 험악한 곳이 많으므로 적을 만났을 때 후충을 먼저 나가게 하고 싶어도 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가했다. 나아가 익재와 호정의 진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굳이 삼봉의 것을 따른 이유에 대해 따졌다. 변계량은 삼봉의 진법이 아군의 방어를 굳히는 치밀한 계책으로 고인이 제정한 진의 본뜻을 잘 이해했으며 다른 학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¹⁶⁾

변계량의 주장은 그 의미하는 바가 컸다. 아마도 익재로부터 진법서 편찬이 본격화되었을 것이다. 뒤이어 삼봉의 것이 나왔는데 당연히 태조 때 기본으로 채택되었다.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호정의 것은 태종 때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태종이 정치를 주도하였던 세종 초창기였음에도 호정의 체계보다 삼봉의 설을 채택했던 것은 그 장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변계량은 고전적인 병법 이론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고전 이론을 완벽히 소화한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연히 변계량이 주도했던 진도법은 이론적인 분위기가 짙을 수밖에 없었다.¹⁷⁾

13)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 4월 병오

14)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5월 기사

15)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16) 『春亭集』 권5, 「雜著·陣說問答」

17) 河且大, 앞의 논문, 123쪽.

그리고 지형상의 문제로 후충이 먼저 나가 적을 유인한다는 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 변계량은 척후군을 제대로 운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그것이 五陣本法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장황할 정도로 진법 운용에 있어 오행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오행에 구애되어도 곤란하지만 오행을 폐지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¹⁸⁾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삼봉의 후충이 먼저 나간다는 설을 따르면서도 또 적군과 먼저 부딪친 부대가 前隊가 된다고 해서 익재와 호정의 주장까지 아울러 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졌다. 이는 상호 입론을 달리했던 진법 체계를 적당히 조화, 절충한데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혼란을 지적한 것이다. 변계량은 후충이 먼저 나간다는 것은 적군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진법이고 먼저 부딪치는 부대가 전대가 된다는 것은 갑자기 상대편을 만났을 때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¹⁹⁾ 상황의 변화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²⁰⁾ 하지만 그로 인해 양상이 복잡해졌다. 전충이 수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격까지도 겸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연히 훈련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진법 훈련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신호체계는 그 성패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요소였다. 그런데 신호체계의 핵심인 旗와 麾에 대해 변계량은 양자를 확실히 구분하였던 삼봉의 체계를 따르지 않고 군사의 눈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익재와 호정에 따라 기만을 채택하였다. 5위마다 방위의 색깔에 따르는 方色旗가 있고 다시 각위마다 5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 기가 있

18) 『春亭集』 권5, 「雜著·陣說問答」

19) 『春亭集』 권5, 「雜著·陣說問答」

20) 후충이 먼저 나아간다는 설과 적군과 먼저 부딪친 부대가 전대가 된다는 변계량의 주장에 대해 세종조차 납득하지 못했다. 오히려 中衛의 主將이 임시로 布置하여 혹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기도 하며, 혹은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계량은 오진본법과 제가의 진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둘 것을 청했다.(『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5월 신사). 대개 세종이 현실적인 이유로 의문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 변계량은 고전 이론에 의거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론과 현실의 우위 문제가 세종대 진법 마련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음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깃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다. 군대의 이목이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여기에 휘까지 더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익재와 호정의 것을 따랐다는 것이다.²¹⁾ 이에 이르러 변계량이 마련한 진법의 절충적인 면모가 확연해진다.

다음으로 기존의 三陣法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左軍과 前軍을 一陣으로 삼아 왼쪽에 두기도 하고, 右軍과 後軍을 일진으로 삼아 오른쪽에 두는가 하면, 혹은 좌군과 후군을 일진으로 삼아 왼쪽에 두고 우군과 전군을 일진으로 삼아 오른쪽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변계량은 반드시 좌군과 전군을 일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즉 진법은 반드시 오른쪽이 앞으로 움직여 방향을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直行할 경우에는 우군이 앞으로 나가고 좌군이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²²⁾ 이로 인해 변계량이 구상한 삼진법에서는 전군이 왼쪽으로 물러가 좌군이 되고 후군이 오른쪽으로 전진하여 우군이 되어야 했다. 오위에서 삼진으로 전환하는데 종전에는 상황에 따라 전열을 형성하였으나 변계량의 체계에서는 한방향으로만 국한되도록 했다. 상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의거해서 전열을 구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변계량의 진법은 대개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 고전 이론에 충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에 충실했던 삼봉의 것이 우선 채택되어 기축을 형성했다. 익재와 호정의 것도 무시하지 않았다. 약간의 절충을 통한 조화를 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전 이론에 충실한 표준화가 추구되었다.

이로 인해 처음부터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일이 문제가 되었다. 지나치게 현실은 중시하면 결국 종전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이론에 치우치면 현실적인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양자의 관계 설정이 세종대 진법 체계의 수립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1) 『春亭集』 권5, 「雜著·陣說問答」

22) 『春亭集』 권5, 「雜著·陣說問答」

2) 내용의 분석과 훈련체계의 정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계량의 설에 입각한 진도법이 1421년 7월 병조에 의해 보고되었다.²³⁾ 변계량이 아닌 병조의 보고 형식을 빌려 공포되었던 것은 아마도 그 사이에 수정 내지 보완이 이루어졌던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진도법을 1433년의 『계축진설』과 함께 소규모부대의 기동과 전투에 대한 전술교범으로서 주로 산악전투를 연상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태종~세종 년간의 주된 관심사가 북방 여진족과의 전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²⁴⁾

병조에서 진도법을 올리며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陣圖의 법은 軍國의 급무이니 연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방의 군사가 전혀 진법을 연습하지 않고 있으니 실로 안 될 일입니다. 지금부터 각도의 절제사에 명하여 매번 농한기를 당하면 別牌와 侍衛, 營鎮에 속한 守城軍 등을 각기 부근에 모으고, 수령 가운데 진법에 밝고 숙달된 자로서 差使員을, 품관을 뽑아 훈도관으로 삼아서 진법을 미리 연습하게 하고, 절제사가 돌아다니면서 검찰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열할 때 검열을 받는 군사 중에서 만약 영을 범한 자가 있으면 도절제사와 차사원·훈도 등을 모두 울문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²⁵⁾

위에서 새로 마련된 진도법이 외방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외방 군사에게 진법을 훈련시켜야 하는 이유 가운데 북방 여진족과의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었을 것이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 당시 시급했던 과제는 외방 군사를 철저하게 훈련시켜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이었다.

23)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24) 河且大, 앞의 논문, 125쪽.

25)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위 서술에서 외방 군사에 대한 훈련을 대개 두 단계로 실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는 도절제사의 지휘 아래 지방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2단계는 대열, 즉 중앙으로 올라와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1단계 지방별로 실시하는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은 별패와 시위 등과 같이 중앙의 번상군과 외방의 중핵인 수성군이였다. 즉 군역 자원 전체가 아닌 핵심에 속한 부대만 동원되었다. 그들은 당시 지방군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결코 그 수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진도법의 표준 편제는 5위 아래의 소인데 大隊 즉 5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위의 병력은 250명, 5위의 총병력은 1,250명이 된다고 했다.²⁶⁾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체로 1,000명 내외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 1단계 훈련을 실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외방 군사 중에서 훈련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 정도를 하나의 단위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진법 훈련을 통해 전국에 걸쳐 군익도와 비슷한 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아울러 평상시 훈련에서 차사원과 훈도관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전시가 되면 곧 바로 지휘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았다.

2단계는 대열로 중앙에서 하는 것인데 검열의 성격이 강했다. 1단계 각도에서도 절제사의 검찰이 있었으나 처벌 조항은 없었다. 관리 감독의 성향이 강했다. 하지만 2단계에서 제대로 못하면 도절제사와 차사원·훈도관 등이 처벌되었다. 따라서 이는 지휘관들이 휘하의 군대를 얼마나 연습시켰는지를 검열하는 것이었다. 종래 혈연이나 지연 등의 사적 기반에 의존하는 것을 혁파하는 대신 공적인 지휘 체계를 수립하면서 진법 훈련을 통해 군사들을 철저히 단련시키려 했다. 결국 중앙에서 외방의 군사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였던 셈이다.²⁸⁾

26) 이에 근거하여 이는 국가 대란에 대비한 총동원 태세를 위한 전술 편제가 아니라 국지적인 침략을 격퇴시키기 위한 임무 부대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했다(河且大, 앞의 논문, 128쪽).

27) 이 시기의 군익도 설치 과정에 대해서는 閔賢九, 앞의 책, 231~6쪽.

28) 기존 연구에서도 진도법의 편찬 배경으로 왕을 정점으로 한 병권을 세우려는 작업이 거

앞서 검토했던 첫머리에 이어 진도법의 본문은 行陣·結陣·應敵·教場 등의 항목 순으로 정리되었다. 본문으로는 처음 나오는 행진에 부대의 이동 방법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各衛의 모든 행동은 오로지 中衛의 지휘에 따른다. 중위에서 角을 한 번 불고 북을 한 번 치면, 각 위에서 이에 응하여 군사를 정돈한다. 중위에서 각을 불고 행군하라는 신호의 북을 치면, 右衛가 먼저 나가서 다음은 前衛, 다음은 中衛, 다음은 後衛, 다음은 左衛가 가는데 4위가 각기 부대의 군기(官旗)를 세우고 천천히 행군하다가 북이 빠르게 울리면 빨리 행군하고 징을 울리면 즉시 정지한다. 만약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靑旗를 앞으로 指하고 白旗를 뒤로 지하며, 북을 빠르게 치면 좌·우위가 각각 그 방위에 나아가 정지하여 진형을 이루되, 적의 대열이 횡대인가 종대인가 행군의 형태를 살핀 다음 지형에 따라 변화시킨다.²⁹⁾

위 내용이 행진의 전부이다. 언뜻 보아도 최소의 내용을, 그것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결진·응적·교장의 항목도 상황은 비슷했다.

첫 부분에 나오는 모든 행동은 오로지 중위의 지휘에 따른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중위의 북소리, 각소리 및 징소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모든 병력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했다. 우리의 지형을 감안하면 기의 가시거리 및 북소리의 가청 거리는 극히 짧으며 이로 인해 불과 수백 명을 통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진도법이 소규모 부대의 통솔을 위한 교범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³⁰⁾

앞서 살폈던 진도법의 첫머리에서는 1단계로 외방의 중요 병력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때 오로지 중위의 지휘에 따르라는 규정은

론되었다(정해은, 앞의 책, 82쪽).

29) 『세종실록』 권12권 세종 3년 7월 기사

30) 河且大, 앞의 논문, 127~128쪽.

곧 명령 체계의 수립과 관계가 깊다. 여기서 중위의 지휘에 해당하는 존재란 중앙에서 파견된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수령이 겸하는 차사원이 맡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식으로든 중앙에서 파견된 인사가 중위의 지휘자가 되어 휘하의 군대를 훈련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행진은 첫머리의 내용과 연관시켰을 때 중앙에서 파견된 인사의 명령에 의해 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구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중위의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순서를 보면, 우위가 첫 번째로 나가고 그 뒤를 전위·중위·후위가 따르며 끝이 좌위였다. 이는 오른쪽이 앞으로 움직여 방향을 회전해야 한다는 변계량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지 않고 좌·우위가 각자의 방위로 나가서 진형을 이룬다고 했다. 미처 우위가 첫 번째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에 맞게 대응하게 했다. 변계량의 주장이 지나치게 이론적이라고 간주해 미리 실전에 대비하려고 보완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원칙은 고수하나 변수가 많음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본문의 두 번째 항목인 결진에서는 전투 대형과 그 편제 방식에 대해 수록하였다. 핵심인 오행진, 곧 方·圓·曲·直·銳 등 다섯 종류의 진치는 법을 연습하는 내용부터 실었다. 일단 중위의 신호에 따라 4위 후소에 있는 遊軍騎兵이 먼저 출동하여 사방에 분산 배치한다. 이는 척후대를 보내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일이었다. 이때 시작은 5위가 각기 자기의 진형을 이루는 것인데 중위는 원진, 좌위는 직진, 전위는 예진, 우위는 방진, 후위는 곡진이었다.³¹⁾ 이는 각위의 기본 진형으로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이전에는 대개 이런 형태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중앙에 위치한 중위는 하늘을 본뜬 원진을, 오른쪽에 위치한 우위는 지상을 뜻하는 방진, 선두에 있는 전위는 침탐형의 예진을 취함으로써 마치 적을 향해 돌진하는 인상을 주었다.

31)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그런 뒤 중위의 신호에 따라 우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들이 합쳐 움직여 일차로 방진을 구성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진이 구축된 뒤에 중위는 원진을 이룬다는 것이다.³²⁾ 이는 『이위공문대』에 언급했던 內圓外方을 재현한 것인데 李靖은 ‘方生於步 圓生於奇’라고 설명하였다.³³⁾ 즉 고전에서 거론했던 正과 奇를 교묘하게 결합시킨 형태라 증시했다.

다시 신호에 따라 방진에서 곡진으로, 이어 직진을 거쳐 예진으로 되며 원진으로 바꾼 다음에 방진으로 변화시킨다.³⁴⁾ 이것을 볼 때 정으로 시작해서 기로 변모했다가 다시 정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에서 기, 다시 기에서 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오행진법 훈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중위의 신호에 따라 전위와 좌위가 합하여 1진이 되어 왼쪽에 위치하고, 우위와 후위가 합하여 1진이 되어 오른쪽에 있으며, 중위는 스스로 1진이 된다고 했다.³⁵⁾ 이는 5위가 3군의 대형을 이루는 것인데 지형이나 적의 상황에 따라 3군으로 바꿀 수 있었다. 넓은 평지보다 좁고 긴 계곡이나 분지가 발달했던 우리 사정에서 반드시 5위만 고집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진의 각 면에는 住隊를 잇대어 배열하도록 했는데 이는 지금의 防牌라고 했다.³⁶⁾ 住隊는 『이위공문대』에서 駐隊로 표기되어 ‘兼車乘而出也’한다고 했다.³⁷⁾ 兵車를 보유한 보병으로 보이는데 조선은 방패로 대신했던 것 같다. 그들이 제1열을 이루었던 것은 여진 기병을 필두로 한 적들의 기습적인 돌격을 일차적으로 저지하기 위함이었다.³⁸⁾ 그 다음 열에는 창과 장검을 지닌 자들을 배치하였다. 그 다음 火燭과 弓弩, 다음으로 騎槍, 끝

32)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33) 『李衛公問對』 卷之中

34)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35)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36)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37) 『李衛公問對』 卷之上

38) 노영구, 「태권도 전사(前史)로서 조선시대 도수무예의 전개」, 『문화로 보는 한국사 2 - 물질문화와 농민의 삶』, 태학사, 2009, 308쪽.

으로 騎射를 배열하도록 했다.³⁹⁾ 이로써 5개열이 구축되도록 했다. 이는 고전에서 다섯 종류의 병장기를 지닌다는 것을 조선식으로 해석해서 편제한 것이다. 후대의 양성지의 증언에 의하면 야인들이 매양 기병을 매복시켰다가 갑자기 소리치며 충돌하는 관계로 우리측 진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吳璘의 疊陣法을 도입하여 彭湃를 앞에 두고 다음에 長槍, 그 다음 銃箭을 두어서 적들이 말을 달려 충돌할 수 없게 할 것을 건의했다.⁴⁰⁾ 그러나 전부터 갑자기 돌격하는 야인을 막고자 방패를 제1열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⁴¹⁾ 진도법에서는 그 다음으로 장·단병기, 원사기, 기병 등을 차례로 정열하도록 했다. 일단 적의 공격을 저지한 다음에 반격하려고 했다. 이때 한 가지 병기로 구성하지 않고 두 개를 혼합시켜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아마도 이것이 당시 조선군의 기본 배치 형태였을 것이다.

5위에는 각기 5색의 휘장과 표시를 배정하였다. 이 역시 오행진의 기본 구조인 바 중위 黃章, 전위 赤章, 좌위 靑章, 우위 白章, 후위 黑章 등으로 오방색에 의거하여 정해졌다.⁴²⁾ 『이위공문대』의 지적대로 평상시 남쪽을 전면으로 하고 북쪽을 후면으로 삼는다는 것을 재현하였다.⁴³⁾

편제에 있어 5위에는 각기 5소를 두었다. 전통적인 5진법에 따르되 위 아래의 단위로 소를 채택했다.⁴⁴⁾ 다시 세부적으로 쭉 한 명은 6尺 간격으로 서고 馬兵은 그 간격이 배가 되게 했다.⁴⁵⁾ 여기서 쭉의 간격이 6尺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중국 병서에서는 4步, 또는 5步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의 당시 실정과 맞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우리의 실정을 고려해서 6尺으로 정했다고 생각된다.

39)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40)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 8월 임오. 이에 관해 노영구, 앞의 논문, 307~8쪽에서 상세히 정리되었다.

41) 『세종실록』 권16, 세종 4년 7월 계유

42)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43) 『李衛公問對』 卷之上

44) 진법에서의 5진법에 대해 김동경, 앞의 논문, 2011에 상세히 정리되었다.

45)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명씩 대오를 결성하는데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결성하여 伍가 되고 오 가운데는 長이 있으며, 두 개의 伍가 小隊가 되고 그 중에 長이 있으며, 다섯 伍가 中隊가 되고 隊에는 正이 있으며, 50명이 大隊가 되고 隊에는 校가 있다. 이 50명이 마음을 합하여 행동하게 했다. 싸울 때는 5오씩 서되 將校가 뒤에서 독려했다.⁴⁶⁾ 전통적으로 애용했고 일찍부터 고전에서 강조했던 伍法에 입각한 편제 방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50명으로 이루어진 대대가 항상 합심 단결하도록 하여 실전에서의 작전 단위로 기능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싸울 때 5오씩 선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대대 전원이 한꺼번에 싸우려면 문제가 있어 다섯 伍로 된 중대가 전투에서 실 단위로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나머지 중대는 예비 내지 교대 병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끝으로 진치는 법에는 원래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많을 경우에는 64종에 이르는데 모두 시기와 형세에 따라 변형된 것인데 그 대요만큼은 오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⁴⁷⁾ 앞에 언급했던 방진을 이루었다가 마지막으로 원진을, 다시 방진으로 바꾸는 것 등은 훈련상의 기본에 속할 뿐 실제로는 절대적 규칙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행이 근본임을, 그것에 충실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더불어 많으면 64종이란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나 주역 64괘를 연상하는 것으로 변화의 무궁무진함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 역시 이론의 충실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전투 대형을 짜서 적과 대처하는 방법을 기록했던 응전에서는 먼저 중위에서 북을 울리면 모든 위의 遊軍의 정찰병(伺候)들이 中軍의 영을 받고서 나아가 적을 관찰한 다음에 소속 위를 거쳐 중위에게 보고하게 했다.⁴⁸⁾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정찰병을 시켜 적진을 염탐하는 것은 필수였다.

46)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47)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48)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그리고 중위의 신호에 따라 후위가 먼저 달려가서 적을 공격하도록 했다. 이어서 전위가 나가게 했다.⁴⁹⁾ 처음에 많은 논란을 빚었던 변계량의 후증이 먼저 나가 적을 유인한다는 설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우리 지형의 특성을 무시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으나 유지했다.

그런데 만약 사면에서 적군의 공격을 당하면 각각의 위가 절차에 따라 싸우되, 중위는 병력을 나누어서 구원하게 했다.⁵⁰⁾ 적군과 먼저 부딪친 부대가 전대가 된다는 변계량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후위가 먼저 가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과 부딪친 위가 전대가 되도록 했다.

이때 출진하여 적과 싸우는 군사는 일제히 10보를 나아가 흩어져 서며 기병도 50보까지 나아가 정지하고서 싸우라고 했다. 이는 『이위공문대』의 육화진 운용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⁵¹⁾ 항상 진형을 갖추 질서 있게 기동한다는 것이다.

적이 패주하면 기병을 출동시키고 유군과 보졸로서 지원하되 항상 대오를 잃지 않도록 했다. 거꾸로 후퇴할 때에도 대오와 진형을 잃지 않도록 좌위와 전위의 유군 중 일부가 후미에서 적의 추격을 끊도록 했다.⁵²⁾ 변계량의 좌위와 전위가 일진이 되어 맨 먼저 움직이는 우위의 후미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끝으로 만약 중위가 공격을 받으면 진형을 전환시켜 싸우는 것과 谷戰, 林戰, 水灌, 火攻法 등은 主將이 그 때에 맞게 처리해야 하므로 일일이 기록할 수 없다고 했다.⁵³⁾ 결국 진법서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기본을 충분히 익힌 장수가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본문 마지막으로 훈련 내용과 군법을 서술하였던 교장에서는 먼저 4개의 表를 세워 전진하거나 후퇴하게 했다.⁵⁴⁾ 이는 『이위공문대』의 ‘前出四表 後

49)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0)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1) 『李衛公問對』 卷之上

52)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3)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4)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綴八旛'을 수용한 것이다.⁵⁵⁾ 이에 중위의 신호에 따라 제1표로부터 순서대로 4표에 이르기까지 좌작진퇴 등의 훈련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진을 치고 천천히 행군할 때에는 보병이 앞서며 기병이 뒤따르되 급히 갈 때에는 거꾸로 하도록 했다.⁵⁶⁾ 이것은 합동으로 훈련할 때 보병과 기병의 속도를 감안해서 상황에 맞게 설정한 것이다.

끝으로 군대가 출동할 때 중위에서 진을 돌아다니며 방울을 흔들고 영을 내리면서 좌작진퇴의 명령과 병법, 즉 군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되 만약 위반했다가 발각되는 자는 처벌한다고 했다. 이때 명령을 위반하거나 章服을 잃은 자는 참수에 처한다.⁵⁷⁾ 이는 군기를 엄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치였다.

이어서 부대원들의 상벌에 대해 정리하였다. 오에서 2인을 잃으면 구하지 않은 3인을 벌하며, 소대에서 4인을 잃으면 구원하지 않은 6인을 벌하고, 25인의 대에서 8인을 잃으면 전 대원을 벌했다.⁵⁸⁾ 오와 소대에서는 40%의 병력을 잃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여겨 나머지 인원을 벌했다. 그런데 25인, 즉 중대급에서는 40% 이하를 상실해도 처벌했다. 이는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상위 부대로 갈수록 서로 구원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상과 벌의 크기가 비슷하여 상쇄하는 규정도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규정도 있다. 그것은 대체로 장교에 관한 것이다. 아군이 희생되었으나 적장을 잡았다면 상쇄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정도에 따라 상과 벌을 내렸다.

그런데 상벌 규정이 오와 대에 한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것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에 국한시킨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위공문대』에서 훈련에는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로

55) 『李衛公問對』 卷之中

56)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7)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8)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인을 오로 묶어 소부대로 실시하고 이것이 끝나면 대부대로 한다고 했다.⁵⁹⁾ 아마도 오와 대로 한정시켰던 것은 우선 1단계 훈련에 충실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진도법은 입안자인 변계량의 설에 근거하였다. 그는 고전에 충실했던 삼봉의 것을 높이 평가할 정도로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론에 충실했다. 하지만 기능상 필요한 것에는 실제 운용되는 것도 받아들였다. 전자가 오행진, 5위 5소의 편제라든가 伍法 등이라면 후자는 간격 6척이라든가 병기 구성 따위를 들 수 있다.

진도법이 공포된 바로 그 달에 태종은 대열을 실시한다는 구실로 진법을 연습시킬 훈도관들을 각도에 파견하였다.⁶⁰⁾ 이는 새로 만든 진법을 전국에 즉각 보급시키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진법서만 보낸다고 될 일은 아니었으며 내용을 숙지한 훈도관들이 파견되어 가르쳐야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동시에 병조에서는 여러 도에 진법 훈도 사목을 제정해서 발표하였다. 첫째로 진법을 연습할 때 법을 범한 수령과 3품 이상의 군관을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가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논하게 했다. 둘째로 23개의 진을 한꺼번에 교열하는 것이 어렵다며 방·원·곡·직·예의 다섯 종류의 진과 행진을 교습하게 했다. 셋째로 평안도의 여연·삭주·의주·강계와 함길도의 경원·경성·갑산의 군병과 마필을 만약 집합시켜 교열하면 방어가 허술해질 것이니 군관 중에 문자를 아는 사람을 불러서 교습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留後司에 作牌한 군인 가운데 마병을 뽑아서 교열하되 本司의 郎廳 한 사람으로 관장하게 했다.⁶¹⁾

이는 곧 파견될 훈도관들이 지녔던 사명의 내용으로 생각된다. 그 근거로 첫째의 수령과 3품 이상의 군관을 처벌하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문무 지방관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훈련할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징벌할 수 있다고 했다. 자연히 훈도관에게 권위

59) 『李衛公問對』 卷之中

60)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무자

61)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무자

를 부여함으로써 훈련에서는 아무리 고위직자라도 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함을 의미하였다. 그만큼 단기간 내에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둘째의 23개가 아닌 다섯 가지의 기본 진과 행진만을 교습하도록 했던 것은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처음부터 복잡한 것을 무리하게 숙달시키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았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더구나 외방에서는 낯설어 적응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도록 했다.

셋째로 평안도와 함길도의 국경 지방에서는 방어 문제로 군관 중에 문자를 이해하는 자만 불러 교습하게 했는데 군관을 훈도관으로 육성해서 다른 병력도 가르치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즉 전파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방어가 허술해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성과도 높이려 했다.

마지막으로 유후사, 즉 개성부에는 마병만 뽑아 가르치되 본사의 낭청이 담당하여 타지와 구별했다. 군의 성격과 구성에 차이가 있어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것으로써 진법 훈련을 한층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체계화시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올리려 했다. 그 계기는 진도법의 공포였다. 공포와 더불어 즉각 실행에 옮겨 결실을 맺고자 했다. 하지만 병조의 사목은 훈도관의 파견에 따른 지시 사항이었지 진법 훈련의 항구적인 제도화에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더불어 교범인 진도법이 지나치게 이론에 경도돼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내부, 특히 외방의 상황은 복잡하고 어수선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달랐겠지만 경제적으로나 그 밖의 여러 측면에서 편차가 심했다. 그런 점에서 원론에 충실한 표준화된 훈련을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일단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론에 충실한 훈련을 시킨 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차 수정, 보완해가는 것이 능률적이라 인식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미 그 내부에 개편의 단서가 내재해 있었다. 이는 교범뿐만 아니라 훈련 체계도 마찬가지였다.

3. 계축진설의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1) 편찬 내용의 파악과 그 의미

1433년(세종 15년) 7월 하경복·정흠지·정초·황보인 등이 왕명을 받들어 陣書를 새로 편찬하여 올렸다.⁶²⁾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 진서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고 『세종실록』에 원문만 전할 뿐이며 『계축진설』로 불리운다.⁶³⁾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계축진설』은 먼저 나온 진도법과 거의 동일한데 다만 실전에서의 전술적 요소가 많이 보완되었다는 것이다. 그 계기는 간행 직전에 있었던 같은 해 4월의 파저강 전투를 들고 있다. 여진족과의 전투 경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계축진설』 편찬자들의 면모를 통해 보장되었다. 먼저 하경복은 15년간 북방 방어에 종사했기 때문에 여진족과의 전투 경험이 풍부했다. 정흠지는 편찬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함길도관찰사로 부임했다. 정초는 이미 함길도관찰사를 지냈다. 황보인은 얼마 뒤 평안함길도체찰사, 함길도도체찰사 등을 역임하면서 김종서와 함께 육진 개척을 주도하였다. 이런 면모가 『계축진설』을 실전에서의 전술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고 전투기법이 보장된 독특한 진법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⁶⁴⁾ 즉, 『계축진설』은 여진족과의 전투를 의식해서 편찬한 병서였다고 했다.⁶⁵⁾

이에 진도법과 『계축진설』의 내용을 비교하여 실제로 얼마나 수정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항목 구성면을 보면, 진도법은 외방 군사의 진법 연습에 관한 규정을 서술하였던 첫머리를 필두로 행진, 결진, 응적, 교장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계축진설』에서는 행진, 결진, 교장, 군령,

62)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63) 정해은, 「계축진설」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64) 河且大, 앞의 논문, 124~130쪽.

65) 위의 논문, 130~135쪽.; 정해은, 앞의 책, 92~93쪽.

응적 등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계축진설』이 좀더 짜임새가 있다고 생각된다. 진도법의 첫머리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고 별도로 처리해야 했다. 그리고 교장에서는 군령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했는데 성격이 다른 것들이 한데 묶여 있다는 느낌을 준다. 아마도 군령에 관한 것이 너무 적어 독립시키기 곤란했던 것 같다. 『계축진설』에 이르러 군령을 대폭 보강해서 교장과 분명히 구분하여 자립케 했다. 그런 점들로 해서 짜임새가 한결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축진설』에서는 응적을 맨 뒤에 배치하였다. 전투 편대를 짜서 적과 대치하는 방법을 기록했던 응적을 뒤로 보낸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행진에서 군령까지는 외부, 외적에 대한 것 보다 내부 정비가 주류를 이루었다. 외부, 외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응적이다. 따라서 일단 내부를 단단히 정비한 다음에 외적과 맞서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靜에서 動으로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 행진에서 군령까지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적인 것이다. 외부를 겨냥하는 강한 동작은 응적에서 비롯된다. 아무튼 몇 가지 이유로 『계축진설』에서는 응적을 맨 뒤에 배치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수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선 행진부터 살펴보자.

各軍의 動靜은 오로지 中軍의 지휘에 따른다. 중군에서 角을 한 번 불고 북을 한 번 치면 각 군이 여기에 응하여 병력을 정돈한다. 중군이 북을 올리고 (가) 麾를 들어 전방을 指하면, 【白麾가 앞에 서고, 다음 赤麾, 다음 黃麾, 다음 黑麾, 다음 靑麾의 순으로 서서 모두 전방을 가리킨다.】 각 군이 차례로 응하여 右軍을 선두로, 다음은 前衝, 다음 중군, 다음은 後衝, 다음은 左軍의 순으로 旗를 들고 천천히 행진하되, (나) 기병이 앞서고 보병이 뒤에 서는데, 횡으로 곧바로 가는 것은 지형에 따라 변한다. 북이 빨리 울리면 빨리 가고

정소리가 들리면 정지한다. (㉔) 은밀히 매복한 기병이 五色旗를 가지고 3리쯤 먼저 가다가 만약 깊은 숲과 초목이 있으면 푸른 기를 들고 언덕이나 험한 곳이 있으면 붉은 기를, 흙벽으로 둘러싼 마을이나 막히고 협착한 곳을 만나면 누른 기, 적군의 소리나 행적이 있으면 흰 기를, 못이나 강이나 내를 만나면 검은 기를 들게 한다. 만약 위급하면 (㉕) 중군에서 각을 한 번 분 다음 靑鷹를 전방으로 指하고 白鷹를 후방으로 지하며, 북을 빠르게 울리고 좌우군은 각각 그 방위로 나가서 정지하여 진을 치고서 적의 움직임을 살핀다.

(㉖) 무릇 행군하는 데에는 우군은 교량을 수리하고 진흙창을 메우며 좁은 길을 개척하며 좌군은 후방을 막고 비상사태를 수습한다. 먼저 민을 만한 심복을 시켜 정예 기병과 鄉導를 거느리고 대군보다 수십 리 앞서 가서 앞뒤로 서로 연락하며 사방의 요처를 수색하게 하는데, 극히 정숙하게 하여 사람이나 말이나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며, 항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㉗) 무릇 군사가 험지나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할 때에는 물고기두름처럼 한 줄로 나아가 하는데, 每隊 50인씩으로 하되 먼저 방패 1인, 그 다음 창이나 장검을 든 1인, 다음에 화통이나 弓手 중의 1인으로 순서를 정하여 보졸 30인이 앞서고 騎槍과 騎射 20인이 그 뒤를 따르게 한다. 도로가 두 사람을 용납할 만하면 두 사람씩 나란히 가고, 세 사람을 용납할 만하면 세 사람씩 가고, 네 사람을 용납할 만하면 네 사람씩 가고, 다섯 사람을 용납할 만하면 다섯 사람씩 간다. 재촉하고 독려해서 정지하거나 멎치지 못하게 하며 요지부터 먼저 점령하게 한다.

(㉘) 輜重이 행군의 뒤에 이어 나가는데 300인마다 50인씩을 뽑아 치중을 보호하는 군대를 삼아 앞뒤로 隊를 나누어 나가게 하되, 앞과 뒤의 거리가 너무 멀거든 3리나 4리 간격마다 호송대를 한둘씩 끼어서 불의의 변을 대비하며, 또 輕騎兵을 좌우로 나누어 가게 해서 으스스한 곳과 숨을 만한 곳을 수색하게 한다.⁶⁶⁾

앞의 밑줄 친 부분이 『계축진설』에 추가된 것이다. 언뜻 보아도 진도법에 비해 상당 부분이 더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처음에 나오는 각군의 군은 위를 바꾼 것이다. 아마도 당시 삼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66)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때문에 위 대신에 익숙한 군으로 대치했던 것 같다. 문제는 전위와 후위인데 이는 전충과 후충으로 바꾸었다. 평상시에는 삼군으로 유지하다가 훈련을 실시하면 오위에 맞추어 전충과 후충을 별도로 편성했던 것 같다. 따라서 전·후충하면 곧 임시 편성임을 알 수 있어 군사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와 (태)에서는 행진시 휘의 이용 방식을 보장하였다. 진도법에서는 군사들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변계량의 주장에 따라 기만 사용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하여 효과가 없다고 여겼는지 『계축진설』에서는 휘를 추가했다. 두드러진 변화라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군사들의 기휘에 대한 숙달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했다. 점점 더 훈련 체계가 복잡해졌다.

(나)에서 기병과 보병의 순으로 출발하도록 했다. 진도법에서는 우위, 즉 우군부터 출발하라고 했을 뿐이다. 그것은 『계축진설』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변계량의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 대신 기병을 앞세운다고 규정함으로써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행진 속도를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태)에서는 기병 중에 본대와 구분되는 척후대를 별도로 두고 그 역할과 기를 이용한 신호 체계를 정리했다. 진도법에는 행진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결진에서 遊軍馬兵이 먼저 출동하여 사방에 배치된다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전에서 척후대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결진 이전인 행진 단계부터 언급되어야 했다. 따라서 진도법의 지나치게 간략하다는 문제점이 『계축진설』을 통해 수정되었으며 그것이 척후대 규정을 통해 표현되었다.

(배)에서는 좌우군의 기능에 대해 정리하였다. 앞서가는 우군이 통로를 개척하고 쫓아가는 좌군은 후방을 경계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게 했다. 아울러 믿을만한 인물로 특별히 최정예를 선발해서 수색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그 운영에 대한 주의 사항도 언급하였다. 선도 부대와 후방 병력의 기능, 그리고 수색대의 중요성까지 강조함으로써 『계축진설』의 수정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배)에서는 좁고 험한 통로를 지날 때의 방식과 부대 편성, 통과 순서에

대해 정리하였다. 위에 언급한 선도와 후방, 수색대 등의 수정 의미와 비슷하다.

(사)에서는 치중의 호송대에 대해 서술했다. 호송대뿐만 아니라 척후 수색대의 필요와 그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이 역시 수정의 의미가 확실했다.

행진의 수정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계축진설』을 편찬하면서 기본 토대는 그대로 두되 실전에 필요한 사항을 대폭 추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간략하여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을 실전에서 즉각 적용될 수 있는 지침으로 바꾸어놓았다고 평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결진, 교장, 군령, 응적에서도 비슷하였다. 두 번째 결진의 경우에도 상당한 추가가 이루어졌으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중위, 즉 중군의 신호로 유군마병이 먼저 나가 사방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나 시작할 때 5군이 각기 자기의 진형을 이루다가 신호에 따라 방진을 구성하고 이어 곡진, 직진, 예진, 원진, 그리고 다시 원진으로 돌아오는 것은 동일했다. 그 안에 휘의 사용 등 일부 바뀐 것도 있으나 핵심은 고수되었다.⁶⁷⁾

그리고 삼군을 이루는 방식도 동일했다. 전군과 좌군을 한 진으로 묶어 좌편으로, 후군과 우군을 한 진으로 묶어 우편으로 하며, 중군은 그대로 한 진으로 편성하는 것은 같았다. 다만 땅이 좁아서 곤란하면 각군은 형편에 따라 진형을 이루되 도저히 안 되면 따로 한 진을 세우도록 했다.⁶⁸⁾ 우리 지형의 특성상 삼군을 모두 병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서 혼련할 때부터 지형에 맞춰 진치는 것을 익히게 했다.

이어서 각 군에 각기 5소를 둔다는 것은 동일했다. 그런데 진도법에서 보졸 1명은 6척 간격으로 하고 마병은 그 간격을 2배로 한다고 했는데 『계축진설』에서는 이를 바꿔 횡으로 5보에 1인을 세우고 종으로 4보에 1인을 세우도록 했다. 진과 진 사이에는 진 하나를 용납할만하게 하고 대와 대 사이에도 대 하나를 용납하도록 했다. 진도법의 경우 조선군이 실제로 사

67)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68)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용하던 간격을 사용했다면 『계축진설』에서는 고전의 이론을 수용하였다. 그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대오를 결성하는 방식, 즉 뜻이 맞는 5명씩 伍를 이루는 것, 두 伍가 小隊, 다섯 伍가 中隊, 50명이 大隊가 되는 것도 일치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추가가 이루어졌다. 1천명마다 200명씩을 遊軍으로 삼아 항상 그 軍陣의 뒤에 위치하게 했다. 그리고 행군, 결진, 습戰할 때 疑兵을 세우는 일, 보충하거나 척후하는 일은 전적으로 유군에 맡기되 만약 군의 인원이 더 많으면 이로써 비율을 삼도록 했다.⁶⁹⁾ 다시 말해 반드시 총병력의 1/5을 유군으로 편성해서 운용하도록 했다. 진도법에서도 유군이 나오기는 했지만 얼마나 할당해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전에서 유군만큼 중요한 존재도 없기 때문에 『계축진설』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諸軍의 下營에 대한 것도 추가되었다. 진도법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계축진설』에서 비로소 규정되었다. 훈련할 때는 소홀히 할 수도 있겠으나 실전에서는 이 보다 큰 문제가 많지 않을 것이다. 간략히 살펴보면 하영할 때에는 모두 지역을 나누어 경계를 분명히 해서 통행을 금하되 길을 깨끗이 해서 대장의 명령이 없으면 다닐 수 없게 했다. 허락 받아 다닐 때에는 반드시 대오를 갖추게 했다. 밥 짓는 일을 일찍 끝내 어두운 뒤에 곧 불을 끄도록 했다. 아울러 순찰자라도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으며 진 밖에도 척후를 세웠다. 나아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조치도 마련해서 대비하게 했다.⁷⁰⁾

下營에 관한 사항을 새로 설정해서 마치 실전처럼 연습하게 해서 실제로 출동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계축진설』의 서술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章服은 진도법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로써 결진 항목에 대한 추가의 성격이 분명해졌다.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두었다. 즉 5군이 각기 자기의 진형을 이루다가 신호에 따라 방진, 곡진, 직진, 예진, 원진의

69)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70)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순으로 변하는 것, 5군 5소, 오법 등이 그것이다. 유군의 편성이나 하영 등은 추가되었다. 이는 실전에서 절실했던 것들로써 추가 작업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세 번째 항목인 교장에서 먼저 4개의 표를 세우는 것은 진도법과 동일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보강이 이루어졌다. 즉 1,200方步를 兩廂으로 나눠서 동쪽과 서쪽으로 마주 향하게 하되 중간에 서로 300步를 띄우고 매 50보마다 표를 1行씩 세워 모두 5行이 되도록 했다. 표 사이의 거리는 50보로 군사들의 진퇴하는 표준이 되게 하였다.⁷¹⁾ 이는 훈련장의 규격과 설비 등에 대한 규정인데 중국 고전에서 그 뜻을 취했던 것 같다. 일례로 『이위공문대』에서 이정은 大閱地로 1,200方步가 되어야 하는데 그 뜻은 6진이 각각 400보를 점하며 東西 兩廂으로 나눔으로 空地 1,200보가 있어야 敎戰所가 된다고 했다.⁷²⁾ 진법을 제대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규격과 설비 등을 확실히 갖춰야 했으므로 『계축진설』에 새롭게 수록하였다.

이하 4표를 이용하는 훈련은 진도법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그 뒤에 旗麾歌와 鼓進金退歌를 첨가하였을 뿐이다. 전자는 휘와 기의 다섯 가지 빛깔, 그리고 휘로 지휘하면 기로 응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닌 노래가사이고, 후자는 북과 징을 치는 것에 의한 행군 방향과 속도 등을 담았다.⁷³⁾ 훈련에 참여하는 병사들이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암송하기 편하게 노래가사의 형태로 만들었던 것은 이미 전부터, 특히 정도전의 진법에서 시행한 바 있었다.⁷⁴⁾ 진도법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계축진설』에서 부활시켰다.

교장에서 4표를 세워놓고 하는 훈련이 결전에서 진짜는 순서와 방식, 5군 5소, 伍法 등이 진도법과 그대로였던 점과 비슷하다. 골격이면서도 군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바꾸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진도법에서 부족한

71)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72) 『李衛公問對』 卷之中

73)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74) 김광수, 앞의 논문, 222쪽.

부분을 추가하되 그것이 앞의 기본과 상충되지 않도록 했다.

네 번째 항목인 군령은 『계축진설』에서 새로 편성되었다. 진도법에는 교장 항목에서 다루었는데 성격상 서로 어울리지 않아 독립시켰다. 하지만 일단 진도법의 규정은 고스란히 계승하였다. 기본으로 최소 한도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 위에 많은 것들이 추가되었다. 우선 시작하는 부분은 동일했지만 절차가 조금 달라졌다. 진도법에서는 출병하면 중위에서 병사를 파견하여 각진을 돌면서 군령을 전달했으나 『계축진설』에서는 각 軍將들을 중군의 깃발과 북 아래로 불러서 전달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전파하게 했다.⁷⁵⁾ 이를 통해 지휘 체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군령의 위엄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진퇴좌작을 어기는 자와 伍에 관련된 처벌 규정은 동일했다.

그런데 진도법과 동일했던 처음과 끝 부분을 제외한 그 사이에 『계축진설』에는 많은 조항이 새로 삽입되었다. 유형으로 나누면 먼저 적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軍事를 누설한 자, 배반하고 달아난 자, 싸우지 않고 항복한 자, 적과 사사로이 통한 자 등이 이에 속했다. 다음으로 집합과 훈련에 관한 것으로, 기일에 늦은 자, 行列이 가지런하지 못한 자, 旌旗이 不正한 자, 金革을 울리지 않는 자 등이다. 계속해서 전투와 관련해서는 主將을 잃은 자, 旗鼓節鉞을 상실한 자, 난리에 임하여 서로 구원하지 않은 자, 적을 부술 때 노략질부터 하는 자 등이다. 그리고 질서 유지와 관련된 것들도 있다. 괴상한 말에 현혹되거나 음양설과 점치는 말을 망녕되이 하는 자, 이유 없이 군을 놀라게 하는 자, 병기와 장비를 버린 자, 將吏로 직무의 불공평한 것을 사정을 써서 서로 용서해준 자, 약자를 짓누르거나 노름, 술주정 등을 한 자, 사리에 순응하지 않는 자, 軍中에서 수레와 말로 질주하는 자, 更鋪의 때를 어기거나 밤에 통행금지를 어기고 군호를 모르거나 다른 막사에서 자는 자, 견고하게 지키지 못한 자, 파견에 불복하거나 직무 맡김에 불평한 자, 백성을 기만하거나 민간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부녀자를 영내로

75)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들인 자, 主將의 일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이다.⁷⁶⁾

이렇듯 여러 유형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훈련, 전투뿐만 아니라 평상시 근무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군령은 비상시 갑자기 엄하게 집행하는 것보다 일상화됨으로써 내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편이 효과적이었다. 이에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 외에 여러 유형의 것들을 보충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으로 확장시켰다.⁷⁷⁾

마지막 항목인 응적은 앞의 네 항목과 사정이 조금 달랐다. 네 항목은 기본은 그대로 두되 그것을 좀더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추가했는데 응적에서는 기본에 해당하는 것도 수정하면서 새롭게 체계화했다. 아래에 제시된 것은 응적의 첫 부분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 중군과 전충이 열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 것을 守兵이라 하고 후충이 戰時에 당하여 먼저 나와 적을 치는 것을 正兵, 좌우군이 전시에 당하여 옆에서 나와 돌격하는 것을 奇兵이라 한다. 【무릇 적에 대응할 때 隊마다 旗를 달리 하는데, 騎射隊는 靑旗, 騎槍隊는 黑旗, 火燭弓手隊는 白旗, 步槍長劍隊는 赤旗를 잡는다.】 (b) 중군에서 북을 한 번 치면, 각군의 遊軍이 먼저 사방으로 나가 적군을 살펴 角으로 자기 군에 보고하면 그 군에서는 각으로 중군에 보고한다. (c) 중군에서 각을 불고 赤麾를 일으켰다가 높히면 전충이 적군을 맞이하고, 黑麾가 전방을 굽하고 북이 울리면 후충이 먼저 나가 적을 막고, 靑·白麾가 전방을 지하고 북이 울리면 좌우군이 옆으로 나가 구원한다. (d) 한 면이 적과 마주치면 다른 군이 이 방식에 따라서 접촉처가 전면이 되는데, 모두 중군의 휘와 북과 각의 지휘에 따라 응전할 것이며, 만약 4면에서 적과 마주치면 그 군의 기와 북과 각의 지휘를 바라보고 듣고서 싸우되 중군이 병졸을 나눠 가서 구원한다.⁷⁸⁾

76)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새로 삼입된 것들은 주로 파저야인의 정벌을 위해 마련했던 것들에서 취했다. 실전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리해서 수록하였다 (윤훈표, 『朝鮮前期 軍法の 適用과 軍令의 運用』 『軍史』 61, 2006, 13쪽).

77) 위의 논문, 14쪽.

78)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위에 밑줄 친 것이 『계축진설』에서 추가되거나 바뀐 부분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첫마디인 (a)이다. 여기서 守兵, 正兵, 奇兵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원래 정병과 기병을 정해놓지 않고 그 때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낙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 가능한 것이며 훈련 단계에서는 그 형을 분명히 함으로써 군사로 하여금 체득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제대로 구현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1렬의 방패를 제외한 각 兵器隊에게 특정한 기를 배당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했다.

더구나 이는 단순히 개념 설명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응적의 후반부에 오행진 이외에 鳥雲陣을 서술하면서 정병과 기병의 진형을 각각 설명하고 그에 따른 각 병기대의 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⁷⁹⁾ 그러므로 첫머리에 수병 등과 병기대의 기를 묘사했던 것은 오행진이 아닌 조운진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종전의 진도법과 다르다는 것을 암시했다.

(b)의 경우 진도법 응적의 시작 부분과 같은데 일단 출발 원칙에 해당하므로 바꿀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c)에서는 달라졌다. 진도법에서는 변계량의 주장에 따라 중위의 신호로 후위가 먼저 나가 적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전위가 간다고 했다. 하지만 『계축진설』에서는 우선 전충이 나가고 다음으로 후충이 나가는 순으로 변경했다.

이는 상당한 의미를 지녔다. 위에 제시된 구절에 이어 조운진을 서술하면서 후충이 먼저 나가 적을 공격한다는 주장은 삭제했다. 조운진은 북방 야인들이 즐겨 쓰던 전법, 즉 새처럼 흩어지고 구름처럼 퍼져서 일정한 향오를 이루지 않으면서도 아군 병력의 적고 많음에 따라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⁸⁰⁾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때 그들의 장기인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것이므로 후충이 먼저 나가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치기 위해 새나 구름처럼 신속히 분산되거나 집결하기도 하면서 무한한 변화가 가능했던 조운진을 도입할

79)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80)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계유

필요가 있었다.⁸¹⁾ 드디어 응적에 수록하여 익히면서 전충이 먼저 나가 적을 대하게 했다. 그로 인해 (c)의 내용처럼 순서를 변경해야 했다. 원칙은 버릴 수 없지만 모든 면에 절대적으로 고수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d)에는 바뀐 것이 없다. 적과 마주친 곳이 전면이 된다는 것인데 조운진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야인이 구사하는 전법을 볼 때 반드시 정면에서 공격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조운진의 도입이었다. 이는 오행진에 속하지 않았으나 야인과의 전투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넣었을 것이다.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특히 정병과 기병에 대해 언급해서 어느 하나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하게 대처하게 했다.

응적은 앞의 항목들과 달리 기본 원리도 일부 수정했는데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이 『계축진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앞 항목과 응적 사이에 원리면에서 차이가 난다면 또 다른 약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진도법이 군사들에게 최소한도의 기초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원론적인 내용을 교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계축진설』은 그에 더해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편찬되었다. 일례로 행진 내용의 전부를 실제로 훈련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많았다. 그럼에도 수록했던 것은 막상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훈련 교범에 단지 눈앞의 것에 국한하지 않고 미리 예비하는 것까지도 포함시키려 했다.

또한 진도법은 이론에 치우쳐 간결하게 정리해서 습득하기에 편했을지 모르나 실용성이 부족하였다. 『계축진설』에 이르러 대폭 보강하여 실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론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적극 숙달하는 것을 가능케 해서 효과가 증진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81) 조운진은 중국의 『六韜』에 나오는 烏雲陣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李弘斗, 「고려의 여진정벌과 기마전」 『軍史』 64, 2007, 146쪽 주)34를 참조할 것.

추가함으로써 이론과 실용의 조화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계축진설』은 진도법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즉, 표준화된 훈련 교범의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다. 오행진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그것은 『오위진법』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2) 체계 개편의 실제와 방향

새로 간행된 진서를 곧 바로 『계축진설』로 명명하고 陣圖와 함께 인쇄해서 중외에 반포하였다.⁸²⁾ 『계축진설』로 이름이 정해지기도 전에 500호 이상의 고을에 대해 모두 삼색 기회를 갖추게 하고 도내에 병법을 아는 사람을 훈도로 뽑아 봄·가을로 무예를 연습하게 했다. 이때 군인과 인리들로 班을 짜고 관노에 이르기까지 적당한 자를 택해서 吹角을 익혀 급한 때를 대비하게 했다.⁸³⁾ 무예를 연습하게 한다고 표현했지만 삼색 기회라든가 취각 등의 표현을 미루어 진법 훈련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외방에서도 봄·가을의 정기적인 행해지는 훈련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종전의 진도법에서는 첫머리에 주로 외방의 훈련만을 언급했는데 이번 『진도』 편찬을 계기로 중앙군의 습득도 병행하도록 강조하였다. 우선 훈련관에서 충의위·별시위·내금위·감사·방패·취라치·별군과 같은 경군의 핵심을 소집하여 교습하였다.⁸⁴⁾

미진하게 여겼는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중점을 두었던 것은 군 조직의 성격과 지역 사정이 반영된 훈련 체계를 수립하였다. 무신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은 중앙군에게는 진법 내용의 이해를 전제로 훈련을 시켰다. 즉 이론과 실기를 병행했다. 1434년 1월에 매년 봄·가을 2번에 걸쳐 병조

82)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기사

83)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무오

84)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기미

와 훈련관 제조 등이 군사와 성중애마에게 『계축진설』을 강하여 通者는 10일의 到를 주고 略通者는 7일의 도를 주며, 到宿法이 적용되지 않는 내금 위에게는 7일 혹은 10일간의 근무로 간주해서 권장했다. 그리고 『진설』만 읽고 陣圖를 익하지 않으면 진을 치는데 능숙하지 못할 것이라며 병조에서 삼군도진무·훈련관제조와 함께 四仲朔마다 넓은 땅을 택해 연습하게 했다. 외방에서는 일찍이 수교한 바에 의해 거행하고, 매년 봄·가을에 갑사를 선발해서 보충할 때 『진설』을 강하여 통자는 화살 2발 맞힌 데 준하고 약 통자는 1발 맞힌 데 준하여 이를 합산하게 했다.⁸⁵⁾ 『진설』에 의거한 훈련을 강화하되 특히 정기화했던 것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중앙군의 핵심이 되는 군사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의 시험을 부과하였다.

지역 사정이 가장 심각하게 고려된 곳은 북방의 야인접경 지방이다. 4군 6진의 개척이 본격화되면서 충돌이 다반사였다. 『계축진설』에 의한 훈련에서 그 사정을 크게 의식했다. 1434년 4월 세종은 함길감사에게 특별히 그곳의 지리 형세와 인심의 소향을 살펴 만일 『진도』에 의거해 시행할 수 없다면 마땅히 행할 만한 절목을 도절제사와 의논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⁸⁶⁾ 여기서 『진도』란 『계축진설』을 가리킨다.

얼마 뒤 함길 감사가 도절제사와 함께 진법을 의논하여 보고하면서 먼저 우리의 장기로 저들의 단점을 노려 공격해야 이길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아군이 야인의 장기인 활쏘기로 대응했기 때문에 여태껏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거기다가 저들이 마치 새처럼 흩어지고 구름처럼 퍼지면서 향오를 이루지 못하는 듯 하나 아군 병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교묘히 틈을 노려 침투함으로써 도리어 많은 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出軍行兵과 進退坐作은 『진설』에 의거하지만 적과 조우했을 때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中翼을 중심으로 左羽翼이 옆에서 나와 향오를 성글게 하되 흡사 구름이 피어오르고 새떼가 흩어지듯 하며, 서는 것은 기러기 떼가 줄지어 날듯이 좌우로 벌려 마치 에워싸는

85)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1월 병술

86)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병진

것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3인이 1伍가 되어 1인은 방패 잡고 검을 차며 1인은 창을 잡되 궁검 차는 것도 허용하며 1인은 궁시를 지니고 검을 차게 했다. 다시 매 3隊 사이에 화통 일대를 두되 3인으로 오를 지어 방패 1인, 화통 2인씩을 배치하자고 했다. 그런 다음 서로 바꿔 가며 연달아 쏘게 하자고 했다. 아울러 적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도를 미리 마련해서 연습시킬 것을 건의했다.⁸⁷⁾ 기본적인 것은 『진설』을 따르지만 실전에서는 방식을 바꿔 대응할 것을 건의하였다. 심지어 진형을 짜는데 5인의 오를 3인 체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를 받자 세종은 즉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五伍之法은 고금을 통해 중시했던 것인데 이제 3인으로 伍를 삼자고 한다. 진법에서는 모름지기 5인의 뜻이 맞는 자들로 엮어 그 마음을 한데 묶어 접전시 1인이 위급하면 4인이 응원하고 2인이 위급하면 3인이 응원하게 했다. 鳥雲陣은 전적으로 산천이 험애하여 열을 이루지 못하는 곳에서 쓰는 까닭으로 主將이 시기에 임해 지세를 보고서 지휘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향오를 성글게 하고 흩어져서 적을 막으면 사람들이 각자 싸울 것이라 하나, 勝負와 進退의 사이에 그 향오를 잃어버리지 않고 각각 그 局勢를 회복해야만, 잠깐이라도 진이 깨지고 병졸을 잃어버리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3인을 가지고 오를 삼는다면 結陣하고 行進할 때에도 3인으로 오를 만들겠는가? 만일 결진하고 행진할 때는 5인으로 오를 삼았다가 단지 접전할 때만 3인으로 오를 삼는다면, 오를 잃고 離次하게 되어 난잡하고 계통이 없어질 것 같다. 지금 단지 접전시의 일만 아뢰고 결진하는 법을 논하지 않았으니 그 결진하는 법도 아울러 마련하여 보고하라.”⁸⁸⁾

위에서 세종은 함길 감사의 건의에서 5인이 아닌 3인으로 오를 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평상시 훈련과 접전시의 조직 체계가 다르다면 아무래도 병사들로서는 혼란을 느낄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전투 상황

87)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계유

88)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계유

에서 발생한다면 싸우기 전에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었다. 이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무려 1년이나 넘긴 1435년 6월 함길 감사 등이 회보하였다. 전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5인이 伍가 되어 1인은 防牌를 가지고 劍을 차며, 1인은 弓矢를 차고 槍을 가지며, 3인은 弓시를 차고 검을 가지되, 만일 보병 전투를 하면 1인이 4인의 말을 지키며 主將이 말 지키는 사람을 헤아려 더두게 합니다. 매양 3隊 사이에 火燭 일대를 두되 역시 5인으로 오를 이뤄 방패를 가진 1인은 검을 차고, 화통을 가진 4인은 검을 차며, 말을 지키는 사람은 위와 동일합니다.”⁸⁹⁾

핵심은 세종의 의도대로 3인 대신 5인으로 오를 삼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태는 전과 같고 단지 1인이 아닌 3인이 弓시를, 2인 아닌 4인이 화통을 지닌 것이 달라졌다. 이로 인해 괜히 수만 늘이는 문제가 생길까봐 보병 전투를 하면 1인 내지 2인은 말을 지키게 했다. 과연 이런 식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며 교육지책이라는 느낌마저 준다. 세종도 어쩔 수 없었는지 그대로 받아들였다.⁹⁰⁾

이상 함길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전군 대상의 표준 교범인 『계축진설』에 의거해 기본 훈련은 실시하되, 지역에 따라 특히 방위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다소 변형된 전투지침서 등을 마련한 뒤 연습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표준 교범 이외에 지역 상황이 반영된 지침서 등에 의거해서 연습하는 것을 병행했다. 그 점에서 종전의 훈련 체계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사료된다.

『계축진설』의 편찬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다.⁹¹⁾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나 종전 보다 철저히 정례화하고 감독과 보고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마침내 1448년(세종 30)에 『진도』와 『진설』

89)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병진

90)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병진

91)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7월 정묘; 『세종실록』 권117, 세종 29년 7월 정사; 『세종실록』 권118, 세종 29년 12월 계유

을 인쇄하여 각도에 보내며 도절제사영과 각 진에서는 당번 군사로 하여금 매월 세 번씩 진법을 연습하며, 또 봄·가을에 각기 한 차례씩 도회소에 모여 3일 동안 익히게 했다. 도절제사는 진법을 연습한 일시 및 교습의 능부를 살펴 매번 세초에 병조로 이관하여 보고하게 했다.⁹²⁾ 제도상으로 그 때까지 나온 어떤 것보다 강했다. 그 배경에는 『계축진설』의 보급과 그에 따른 강력한 실천 의지가 있었다.

위 조치는 외방에 한정되지만 중앙은 훨씬 이전부터 강화했다. 1437년(세종 19)에 4중월, 즉 2월·6월·8월·11월에 실시하는 것 외에 매월 2일에 출군 군사의 다소에 따라 진법 훈련을 하게 했다.⁹³⁾ 그런 양상이 마침내 외방으로 연장된 것이다. 『계축진설』의 편찬이 훈련 체계를 보다 강도 높은 것으로 개편하는데 직접 영향을 주었다.

4. 맺음말

세종대에 이르면 제도 문물의 정비가 전과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그 중에는 공적인 지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과 더불어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방도의 하나로 진법 훈련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전부터 시도했었으나 중앙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뿐 전국에 걸쳐 체계화되지 못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표준화된 진법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했는데 그 원리를 오행진에서 찾았다.

세종의 즉위 뒤 변계량의 주도로 본격적인 작업이 전개되었다. 그는 과거의 제설 가운데 비교적 고전 병법 이론에 충실했다고 평가된 삼봉의 것을 축으로 익재, 호정 등의 설도 일부 수용된 오행진법을 강구하였다. 드디어 1421년 첫 번째 표준안인 진도법이 공포되었다. 병조의 보고 형태로 공

92) 『세종실록』 권122, 세종 30년 10월 신사

93)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9월 갑인

포되었으나 변계량의 주장이 근간을 이루었다. 그는 고전 이론에 충실한 진법서를 만들고자 했는데 진도법에서 그런 점이 두드러졌다. 행진에서 결진, 응적, 교장에 이르는 항목마다 답아야 할 최소의 내용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진도법이 나오자 곧 전국적으로 보급했다. 대열을 명목으로 진법을 훈련시킬 훈도관을 각도에 파견했다. 아울러 진법 훈도 사목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이를 계기로 외방 중심으로 훈련 체계를 정비했다. 곧 진법 훈련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체계화시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올리려 했다. 하지만 교범인 진도법이 이론 중심으로 내용마저 간략하여 현실성에 문제가 없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외방의 상황은 복잡하고 어수선했다. 그럼에도 원론에 충실한 표준화된 진법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일단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이론에 충실하게 훈련을 시킨 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차 수정, 보완해가는 것이 능률적이라 인식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미 그 내부에 개편의 단서가 내재해 있었다. 이는 교범뿐만 아니라 훈련 체계도 마찬가지였다.

1433년 하경복 등에 의해 진도법을 대체하는 『계축진설』이 편찬되었다. 그 현실적 계기를 과거장 정벌을 비롯한 여진과의 전투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서 얻은 정보가 수정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계축진설』은 진도법의 골격을 일단 유지했으나 여러 부분에 걸쳐 대폭적인 추가, 또는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행진, 결진, 교장, 군령, 응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유사한 듯 보이나 전체적인 짜임새는 한층 더해졌다.

본문 내용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 그 방향은 실천에서 즉각 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변계량이 제시했던 근본 원리, 즉 후충이 먼저 나가 전을 유인해야 한다는 것도 바꾸었다. 원칙은 버릴 수 없으나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고수하기가 어려웠다.

진도법이 최소 한도의 기초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원론적인 것을 교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계축진설』은 그에 더해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었다. 내용 전부를 실제 훈련시키는 것이 곤란함에도

수룩했던 것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훈련 교범에 단지 눈앞의 것에 국한하지 않고 미리 예비하는 것까지도 포함시켰다. 그런 점에서 『계축진설』은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오행진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그것은 『오위진법』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진도법에서는 첫머리를 통해 외방에서의 훈련을 대개 언급했는데, 『계축진설』이 편찬된 뒤에는 중앙과 지방의 조직 성격과 사정이 반영된 체계에 따라 교습하도록 했다. 문제는 적과의 충돌이 잦았던 함길도 등이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전군 대상의 표준 교범인 『계축진설』에 의거해 기본 훈련은 실시하되, 지역 방위를 고려해서 만든 전투지침서 등에 근거해 연습하도록 했다. 즉 표준 교범 이외에 지역 상황이 반영된 지침서 등을 마련해서 연습하는 것을 병행했다. 훈련 체계도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던 진법 훈련은 『계축진설』의 배포를 계기로 다시 강화되었다. 중외를 막론하고 제도상으로 그 이전보다 강도가 높아졌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물론 감찰 기능이 거세지면서 그에 따른 책임도 한층 분명해졌다. 편찬이 훈련 체계의 개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수정 및 추가 작업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이론과 실용의 조화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이 점이 세종대 진법서 편찬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차후 『오위진법』을 낳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세종대 작업의 역사적 의의라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1. 9. 30,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진법서, 진법 훈련, 세종, 진도법, 계축진설, 전투 지침서, 오행진법, 변계량, 오위진법, 진설

<ABSTRACT>

Compilation of Book on Battle Formation(陣法書) and Reorganization of Battle Formation Exercise System during King Sejong in the Joseon Dynasty

Yoon, Hoon-pyo

This study is what clarifie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by analyzing contents of book on battle formation, which was published twic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in the Joseon Dynasty. It considered even on the reorganization of exercise system in battle formation according to the publishment of book on battle formation at the same time.

What was issued primarily in A.D. 1421(3rd year in King Sejong) is called *Jindobeop*(陣圖法). And, what was compiled in A.D. 1433(15th year in King Sejong) is called *Gyechukjinseol*(癸丑陣說). First of all, *Jindobeop* was examined. At this time, it examined understanding about Byeon Gye-ryang(卞季良)'s battle formation, which had been the background of its publication. He made great effort for accepting the classical theory rather than being worried about a problem of applying it to reality. That led to what *Jindobeop* tended to be strong in being biased to theory. It was important to uniformly carry out the standardized exercise that is loyal to theory because of the internal situation in those days.

However, as the combat got fiercer with Jurchens, the reorganization on a exercise method was inevitable. Due to this, book on battle formation was more imminent, which is conducive to the actual battle, than theory. A work of modifying *Jindobeop*, which is the existing exercise textbook, was hurriedly driven. Finally, *Gyechukjinseol*, which is the new book on battle formation, was compiled. This was book on battle formation that can be immediately applied to the actual battle. In addition, the contents were

reinforced with thinking even about a situation that can happen to the battle in the future. In such sense, *Gyechukjinseol* was *Jindobeop* that was advanced one-step further.

In the meantime, the basic exercise was carried out primarily based on *Gyechukjinseol*, which is the exercise textbook of targeting the whole army in a place where is imminent in defense like *Hamgildo* Province(咸吉道). And then, it made them exercise on the basis of combat guidebook, which was made by considering regional situation.

Furthermore, the battle formation exercise, which had failed to be activated in the meantime, was intensively carried out once more in the wake of widely distributing *Gyechukjinseol*. Through this, the compilation of book on battle formation over two time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greatly contributed to reinforcing military power.

Key Words : Book on the Battle Formation, Battle Formation Exercise System, King Sejong, *Jindobeop*, *Gyechukjinseol*, Combat Guidebook